



18일 심경섭 한화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권율정 대전현충원장이 유가족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그룹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천안함용사 희생 기려

사건 5주기 앞두고 채용 유가족 격려

5년 전인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진 날이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당시 글로벌인재 채용을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이었다. 김 회장은 북한의 불법 무력 도발로 인한 천안함 폭침과 꽃다운 나이에 순국한 46용사의 소식을 접했다. 김 회장은 젊은 나이에 순국한 46용사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남았다. 김 회장은 “그룹의 창업 이념인 ‘사업보국’을 실천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그룹으로서 유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며 “단기적·물질적 지원보다는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유가족 중 사망자의 직계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1명을 채용하는 한편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천안함 유가족 우선채용 결정이 있은 후 김 회장은 “안타까운 천안함 사건에 대해 기업이 도울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정이 슬픔과 실의에 잠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둔 18일, 한화그룹은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한화 심경섭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그룹에 입사한 13명과 입사예정인 1명의 유가족들을 초대해 격려하고 조국을 위해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들의 희생 정신과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참석한 14명의 유가족은 천안함 사건 당시 김 회장의 제안으로 한화그룹에 입사를 희망한 38가족 중 현재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생명 등에 근무하는 13명과 1명의 7월 입사 예정자다.

이날 행사에서 심경섭 대표이사는 김 회장이 천안함 유가족 직원들에게 보내는 격려편지를 대신 낭독했다. 김 회장은 천안함 유가족들을 격려하는 마음과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순국한 용사들이 조국을 지켰듯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또한 “여러분과 신용, 의리를 바탕으로 함께 한 걸음씩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유가족에게는 약속의 의미로 김 회장이 직접 서명한 편지, 선물과 함께 천안함 애도기간 특별 휴가 2일이 주어졌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 새로운 책

야구로 신나게 배우는 수학



●수학박사 야구천재 (윤승욱 글·이동희 그림 | 고즈윈)

야구장에서 수학과의를 한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책을 손에 들어라. ‘수학박사 야구천재’는 수학이라면 몸서리를 치던 수달이가 야구에 빠져들면서 수학박사가 되는 이야기다. 한 장 한 장 깔깔거리며 읽다보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비법도 찾아낼 수 있다.

야구기자로 15년째 야구현장을 누비고 있는 저자는 “야구를 자세히 보면 수학의 비밀이 보인다”고 단언한다. 스포츠를 알면 뇌가 똑똑해진단다. 실제로 야구는 수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스포츠다. 야구는 대부분 3의 배수로 움직인다. 3의 배수만큼 잘 이용하면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야구경기에서는 타율, 방어율, 승률 등 다양한 숫자들이 쏟아진다. 이 책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며 야구경기의 숫자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 뒤 실제 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용해본다면 수학이 야구만큼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양형모 기자

마치 와인처럼...요리와 함께 즐겨도 깊은 품미

디자이오코리아 '원저 W ICE' 출시

글로벌 프리미엄 주류기업 디자이오코리아(대표이사 조길수)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디자이오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성과인 35도 신제품 '원저 더블유 아이스(W ICE by Windsor)'를 공식 출시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한국 소비자의 변화하는 주류 트렌드에 기반해 탄생한 제품이다. 독주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도주 트렌드가 위스키 시장에도 불고 있기 때문이다.

간간한 블렌딩 테스트...2년 간 개발
도수 35도...고유의 맛·향은 그대로
가볍게 녹는 부드러운 입냄김 인상적
조길수 대표 "주류 소비자 니즈 충족"



디자이오코리아가 내놓은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독주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저도주 트렌드에 맞춘 전략 신제품이다. 18일 열린 론칭 행사에서 디자이오코리아 조길수 대표(가운데)가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35도 저도주 위스키 출시로 시장에 새 바람

위스키 제조 공법상 도수를 낮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물을 좀 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수를 낮추면서도 적절한 블렌딩을 통해 위스키 고유의 향과 맛을 유지하는 것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0년 스킵치 위스키 제조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디자이오에서도 원저 더블유 아이스를 탄생시키는데 2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야 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99.85%의 스킵치 위스키 원액에서 시작된다. 국내 판매 1위 위스키 원저의 탄생지는 스코틀랜드다. 영국 왕실이 인증한 증류소인 로열 라크나가(Royal Lochnagar) 증류소의 원액을 사용했다. 영하 8도의 냉각 여과 공법(Chill-filtering)을 사용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내면서도 위스키 고유의 향을 유지했다. 냉각 여과 공법은 위스키를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위스키 제조 과정에서는 영하 4~6도의 온도에서 위스키 원액을 냉각하며 여과시키지만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영하 8도 냉각 여과 기술을 채택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블렌딩 기술도 적용했다. 스코틀랜드 최고 권위의 위스키 블랜더들이 참여해 수

많은 블렌딩 테스트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솔잎, 대추, 무화과 추출물 등을 첨가해 부드러운 끝 맛을 내면서도 밸런스가 잡혀 있는 위스키 전통의 맛을 구현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의 출시는 디자이오에서 지난해 11월 선보인 '헤이그 클럽'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헤이그클럽은 국내 최초의 싱글 그레이드 스킵치 위스키다. 보리 맥아를 사용한 기존 위스키와 달리 호밀 등 엄선된 곡물을 원재료로 빚은 위스키다.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내 국내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 역시 헤이그 클럽과 마찬가지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카테고리 확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출시된 위스키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스키 즐기지 않던 젊은 고객에게도 어필 할만한 부드러움 맛

더글라스 머레이 디자이오 마스터 블랜더는 원저에 대해 “달콤함과 매콤함의 부드러운 조화가 인상적인 위스키다. 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블렌딩이며 아시아 요리에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이 같은 원저의 특징에 저도주의 특징을 더했다.

실제로 기자가 맛본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과일향과 바닐라향이 진하게 느껴졌다. 35도 저도주라고 하면 향과 맛에서 정

통 위스키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시음 결과는 달랐다. 가볍게 녹는 듯한 부드러운 목넘김이 인상적이었고, 얼음을 넣어 온더록스로 마셔도 맛과 향을 오래 유지했다. 마치 와인을 마시듯이 음식과 함께 즐기기에 더 없이 알맞은 위스키라는 느낌이다.

디자이오코리아 조길수 대표는 “국내 소비자의 주류 소비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 품질에 대한 전통은 지키되 제품 혁신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국내 1등 위스키 브랜드인 원저의 명성과 맛, 품질 등을 고스란히 승계한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소비자의 새로운 선택 기준이 될 제품”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출고가격은 450ml 기준 2만4530원(부가세 포함)이다. 기타주류로 표기한 이유는 SWA(Scotch Whisky Association)에서 위스키의 정의를 40도 이상의 스코틀랜드산 위스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저 더블유 아이스는 스킵치 위스키 원액 99.85%에 향을 첨가한 35도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이오에서는 S WA 회원사로 협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위스키라 부르지 않고 스피릿 드링크(Spirit Drink)란 표현을 사용했다. 국내 주세법상 위스키에 향을 첨가하면 기타 주류에 해당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모바일 야구게임도 “플레이볼”

게임빌 ‘이사만루2015 KBO’ 출시 임박
‘프로야구 6:30’ 등 시뮬레이션 장르 붐물

모바일 야구게임 경쟁이 뜨겁다. 국내외 게임사들은 한국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다양한 신작 모바일 야구게임을 준비 중이다. 특히 3D부터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우고 있어 게임팬들은 물론 야구팬들까지 설레게 하고 있다.

●게임빌-컴투스 ‘3D’로 격돌

모바일게임 전통의 강자이자 한 지붕 가족인 게임빌과 컴투스는 3D로 맞붙는다.

게임빌은 공개게임즈와 손잡고 ‘이사만루 2015 KBO’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 출시 예정이다. 실사 모바일 야구게임 ‘이사만루 시리즈’의 최신작이

다. 특히 풀3D로 사실감을 더해 눈길을 끈다. 10개 구단으로 구성되는 2015년 KBO 로스터를 담았다. 또 각 선수들의 고유 포즈를 구현한 애니메이션 연출부터 실제에 가까운 타구 궤적, 긴장감 넘치는 주루 플레이 등의 콘텐츠를 적용했다.

컴투스는 ‘컴투스프로야구2015’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최근 최종 점검을 마쳤다. 이 게임은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을 기록 중인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의 최신작. 무엇보다 시리즈 최초로 3D 그래픽 기반의 사실적 플레이가 가능하다. 10개 구단 선수들과 구장을 그대로 반영해 사실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 주간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한편 친선모드와 리그모드, 대전모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엔트리브-세기는 시뮬레이션으로 맞짱

모바일 야구게임에서 인기 장르에 속하는 시뮬레이션도 선보인다.

엔트리브소프트는 ‘프로야구 6:30 for Ka kao’를 24일 출시한다. 출시 전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 ‘프로야구 매니저’를 히트시킨 엔트리브의 첫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프로야구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아마추어리그에서 메이저리그까지 도전할 수 있다. 실제 경기를 옮겨 놓은 듯한 정교한 시뮬레이터 안에서 쉽고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선수 카드를 제작하는 데 통산 기록은 물론 선수의 살아온 인생까지 담아내 재미를 더한다.

세가퍼블리싱코리아도 ‘프로야구매니저M’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현재 사전 등록을 진행 중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소재로 삼은 매니지먼트 게임이다. 특히 수년간 쌓인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개발해 현실감이 넘친다. 패נת트레이스 외에도 친구들과 함께 강팀을 격파하거나 1:1로 대결을 펼치는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한국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신작 모바일 야구 게임들이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중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임빌의 3D 모바일 야구게임 ‘이사만루2015 KBO’.

사진제공 | 게임빌

KT, 중소·벤처기업과 재난안전 공동연구

KT는 경기 일산종합시험센터에 중소·벤처기업과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재난안전 협력 테스트 랩’을 오픈했다. 약 100㎡ 공간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펌토셀(초소형 기지국) 등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 음성·영상 LTE 무선기(IP-PSTN)와 D2D(단말간 직접 통신) 등 PS-LTE 분야 핵심 단말기 20여대 등을 비치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이곳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KT의 유무선 통신망에 직접 연결해 연동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또 랩에서 제공

하는 PS-LTE 단말기를 이용해 재난안전분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시험을 할 수도 있다. 참여 문의는 이메일(ppdr.lab@kt.com)로 가능하다.

SKT-서울산업진흥원, 청년 창업 지원

SK텔레콤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서울 용산에 위치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 모바일 테스트베드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최신 단말기 30대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

한다. 아울러 향후 5G시대에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물인터넷(IoT) 단말기와 드론, 로봇 등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LGU+,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 앞장

LG유플러스는 온오프라인보시시스템과 함께 보육업무 효율화와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어린이집 등을 구현한 ‘스마트 어린이집’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어린이집 차량 위치와 운행 현황 및 사고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는 ‘U+Biz LTE블랙박스키즈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용 OCT V를 구축형으로 설치해 영상을 원하는 기간 동안 저장하고 필요할 경우 PC와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 ‘tvG 키즈 스마트솔루션’으로 보육교사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동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if